

보이지 않는 비행기 스텔스 전투기의 실전기

서병홍

〈본지 편집직원〉

입대문 미공군의 속셈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록히드 F-117 나이트호크는 걸프전쟁에서 1296회의 편대출격을 실시하여 2000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

폭탄투하량만을 보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폭탄의 대부분이 레이저 광선 유도탄으로 그 96%가 소기의 목표에 명중한 것을 생각하면, 비유도 자유 투하폭탄을 몇 만톤 투하한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F-117이 이라크 상공에서 행한 편대출격이 「기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50여대의 F-117은 이라크에서도 가장 방어가 완벽에 가까운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6900비행시간 이상, 1300회에 가까운 작전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를 당하지는 고사하고 한방의 명중탄조차 맞은 일이 없었다. 기적이란 단어가 거듭되는 행운이 아니다. 면밀한 계산에 뒷받침된 일로서, 발생하도록 해놓아 일어난 사실이야 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F-117의 기적은 스텔스기술이라는 최첨단의

테크놀로지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사는 F-117을 망령이라고 부르며 이라크군에서도 같은 망령이라는 이름으로, 이 보이지않는 기체에 두려워서 전율하고 있다. 「고스트 뉴욕의 환상」이라는 영화가 있었

들러싼 위기상태가 발생했다. 미국은 재빠르게 이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고 미중앙군(CENTCOM) 휘하의 항공부대 CENTAF는 쿠웨이트침공의 다음 날, 8월 3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공중 폭격작전입안을 개시하고 파견부



〈출격준비가 끝난 스텔스기〉

으나, F-117이 완수한 기적은, 「사바, 바그다드의 환상」라고 형용하면 좋을런지.

1992년 8월 2일,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페르샤만안을

대와 공격목표의 선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당시 부시 미대통령은 8월 7일, 이라크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막의 방패작전을 발동하고 있었으며, 제1진으로서

제1전술전투비행단의 F-15C 이글 전투기 48대를 사우디 북동부의 다란에 파견했다. 이들은 제공권의 우위를 확보하여, 이라크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조기에 파견되었으나 이라크에 대한 반격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부대의 파견도 연이어졌다. 그 중에는 8월 19일 네바다주 도노파시험기지에서 사우디 남부, 예멘국경에 가까운 키미스 무샤이드에 파견된 제415전술전투비행대의 F-117A21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F-117 승무원의 태반은 파견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대서양을 날아 착륙한 곳은 카미스 무샤이드에 방금 완성된 사우디에서는 최신 최고수준의 킹허리드 항공기지였다. 동 기지는 이라크가 보유하는 전역탄도유도탄인 알 후세인 알라파스의 사정권 밖에 있으며 소규모 폭격에는 견딜수 있는 콘크리트제 강화 행거가 준비되어 있었다. 대원들로부터 도노파, 이스트라고 명명된

킹허리드항공기지에는, 연이어 12월 4일, 제416전술전투비행단이 추가 배치되었다. 홈페이지의 도노파에 남겨진 제417전술전투훈련비행대는 기체, 요원의 유지, 훈련을 담당했으나 91년 1월 26일에는 제417전술전투훈련비행대 사령 로버트 메이어중령이 6대를 인솔하여 항공기지에서 훈련을 개시했으며, 피크시의 사우디 파견기는 42대에 달했다.

제37전술전투비행단이 보유하고 있던 F-117A 56대의 거의 모두가 기체의 교체등으로 한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 항공기지에 파견되었다.

F-117A나 스텔스기술에 대해서는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겠으나 기체의 형상이나 기체 표면에 깔려져 있는 RAM(레이더 흡수재)에 의해 RCS(레이더 단면적)을 극단적으로 작게한 기체로서 실용적인 범위에서는 레이더에 비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

로 메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지금까지 파나마분쟁으로 소규모의 출격은 있었으나 항공단 규모의 해외발진은 이것이 최초로 스텔스라는 최신기술이 실전의 장에서 시험되는 최초의 기회가 돌아왔다.

걸프위기가 이라크대 다국적군의 무력분쟁, 걸프전쟁 작전으로 확대하는 것은 F-117의 항공기지 전개로부터 5개월이나 앞서지만, 그간 다국적군 내부에서도 스텔스의 탐지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었다.

다국적군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는 하나 프랑스나 영국은 중동의 무기시장을 미국과 경쟁하는 라이벌끼리다. 프랑스제 대공미사일의 레이더나 영국해군 초계함의 방공레이더가 F-117을 탐지했다라는 뉴스는, 보도 규제에 의해 주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는 보도기관에 알려지고 있었다.

그 결과 「스텔스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논조가 나날이 두드러져 갔다. 군사·항공전문지는 탐지할 수가 없을터인 스텔스기 탐지성공에 여러가지 설명을 가했으나 미군은 여기에 대해 굳이 반론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미국측은 이라크에도 스텔스는 만능이 아니고, 레이더로 탐지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해두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스텔스에 관한 평가는 곧 실전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언론기관의 풍문을 역이용하는 쪽이 유리한 계책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비행중의 스텔스 전폭기- 보기에다 어딘지 섬짓하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

퍼펙트 게임의 첫 출진

UN안전보장이사회는 91년 1월 16일을 기한으로 이라크에 철수를 요구하고 다국적군이 무력행사를 승인했다. K데이라고 불리는 1월 16일이 되어도 이라크는 철수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무력행사로 결정을 보게 되었으나, 지상전에 의한 본격적인 반격작전은 회생이 클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보되었다. 그때문에 당면 목표는 공군이나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중폭격으로 이라크 정부 및 군의 거점을 공격하게 되었으며 전투개시는 1월 17일 03시로 결정되었다.

항공부대 CENTAF의 항공작전계획에서는 개전으로부터 1주일내에 제공권의 확보와 NBC(핵생물화학) 무기관련, 전투지역 탄도미사일, 지휘관제시설등의 공격목표가 지시되어 있었다.

제37전술전투항공단(37TFW)에는, 후속되는 공격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공레이더와 지휘관제시설의 공격이 명령되어 80개의 목표가 지정되어 있었다. 16일 23시를 지난 무렵, 항공기지(KKAB)에서는 항공단 사령 알 워드레이대령, 제415전술전투항공단(415TFW) 「나이트스토커스」사령 럼프 겐첼중령이하, 제1파공격대를 구성하는 10대의 F-117A가 출격을 준비했다.

편대는 도중에 공격목표에 따라 갈라졌으나 그레크 피스트스령은 전투개시(H아워) 9분전에 바그다드 남서 약 65마일에 있는 남부방공 요격작전센터(IOC)에 최초의 레이저 광선유도식 페이

브 웨 이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했다. 이어서 그는 방공센터 작전 센터(SOC)에도 다시 한 발의 페이브웨이 폭탄을 투하했다.

소령은 파나마폭격의 「자스트 코스작전」에서 F-117로 폭탄을 투하한 파일럿의 한사람으로, 그런 뜻에서는 유일한 스탠스실전 경험자였다(또 한사람의 경험자는 전 항공단사령 토링대령).

전투개시와 함께 제1파 공격대는 각기 지정공격목표를 향했으나 웨드레이대령이 탑승한 항공기와 다른 한대는 바그다드상공에 도달하여, AT&T(미국전화통신사)빌딩이라고 부르는 군사통신중계센터에 최초의 폭탄을 투하했다. AT&T빌딩이라고 하나, 그 회사는 건설을 맡았을 뿐, 실제로 사무실은 두지않고 있었다.

여하튼 바그다드와 그 주변에는 동 센터 외에 공군사령부빌딩, 마이크로파 중계국등이 있고, 후세인대통령의 집무, 거주구역등도 목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 바그다드의 공격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쿠웨이트 남부의 방공지휘소에도 1대가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제1파로 바그다드를 공격한 것



〈레이저 유도폭탄 투하를 위한 조사장치로 본 이라크 항공기〉

첼중령은, 마치 라스베가스와 같이 등화관제가 되어 있지않은 다운타운의 상황을 묘사했다. 요소를 선제공격 했다고는 하나, 이라크측은 F-117의 내습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폭격을 받고난 뒤에 겨우 이라크의 방공부대는 공격을 개시했으나, 노리는 적기는 레이더로서는 전혀 탐지할 수가 없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무턱대고 쏘아대는 것 뿐이었다. 당시 CNN의 바그다드 특파원이 돌연 시작된 대공사격을 리얼타임에 송신해 왔으나 바그다드시내는 등화관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F-117이 완전한 기습에 성공한 분명한 증거였다. 이라크의 방공망은 23밀리 대공포에서 지대공미사일까지 발사했으나 레이더가 F-117을 포착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하며, 손해를 줄 만큼의 지근탄은 전혀 없었다.

이날 밤, 제2파의 공격은 제416전술전투비행단사령 그레고 고뉴어중령의 지휘로 실시되었으며 바그다드 주변의 방공요격작전센

터, H2, H3이라고 불리는 서부의 주요기지라든가 이라크, 쿠웨이트 국경지대의 방공레이더등을 공격했다. 결국 이날 밤 만으로 30회의 출격이 실시되고 36개소의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

크비 「원자로공격」작전

F-117 및 BGM-109 토마호크함재 순항 미사일에 의한 바그다드 공격은 그후에도 계속되었으나, 방비가 견고한 다운타운 공격은 스텔스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로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라크의 방공부대는 매일밤과 같이 내습하는 도깨비같은 스텔스기를 기다렸으나, 그런데도 F-117에 대해 단 한발의 명중탄조차 쏠 수가 없었다. 2일째(D데이+1)이후 F-117이 실시한 편대출격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셋이 있다.

첫째는 개전부터 수일후(정확한 일시는 미발표)에 실행된 오실러트원자력발전소 폭격으로 8대의 F-117이 출격하여, 3기가 있던 원자로 중 2기를 파괴하고, 1기에 손해를 가하고 있다. 원자로 공격은 그 2일후에도 F-16전투공격기 32대로 실시되었다.

공격부대에는 F-15C호위전투기 16대, EF-111A 전자방해기 4대,

E-4G 와일드윙즈기 8대, 급유기 15대, 계 43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대공포화에 의해 목표에 접근하기는 곤란했고, 원자로에 명중탄을 가할 수는 없었다. 그 점, F-117은 고고도를 레이더에 포착되는 일 없이 원자력 시설에 접근하여 레이저광선유도 폭탄을 투하했다. 더욱이 지원기는 급유기 2대 뿐으로 비용대효과는 발군이였다.

이어서 1월 24일과 25일의 양일간, F-117은 바그다드 서방의 알타과덤기지에 전개하고 있는 B-6D폭격기 6대를 파괴하고 있다. B-6D는 중국제 TU-16바저로 화학탄두를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F-117이 운용하는 2000파운드, 레이저유도폭탄은 GBU-10C/D페이브웨이Ⅱ와 GBU-27페이브웨이Ⅲ으로, 탄두는 전자가 MK 84범용폭탄이며, 후자는 BLLU-109/B철갑탄이다. 알타과덤기지의 강화행거를 관통하기 위해 공격에는 BGM-27이 사용되고 B-6D를 모두 파괴하고 아드년 공중조기경보기에도 손해를 입히고 있다.

핀포인트 폭격에 의해 거의 전투원에게만 위협을 주고온 검은유령도 민간인에 그 마수를 뻗는 날이 왔다.

2월 13일. 바그다드 서방 아메

리어지구의 군사통신센터를 2대의 F-117기가 한발씩 GBU-27을 투하했다. 센터는 이 공격으로 완전이 파괴되었으나 불행하게도 다른 층에서 민간인 수백명이 밤사이에만 피난하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이 폭격에 의해 400명 이상이 폭사 또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며, 걸프전쟁에서 F-117이 남긴 유일한 오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책임은 항공단도 개개의 파이럿도 아니고 민간인이 없다고 판단한 항공부대 CENTAF상층부와 정보기관에 있다. 또 37TFW의 본국귀환은 4월 1일의 일로, 1월 17일부터 2월 28일의 정전까지 1296회의 편대출격을 실시했으나 이것은 다국적군기 전체로 볼때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무능력율은 85.8%로 발군의 가동율을 자랑하며 투하된 2000톤을 넘는 레이저광선유도탄은 전략목표파괴의 40%에 달했다. 더욱이 폭탄의 직격율은 75%를 넘고 있다.

물론 속도 성능등, F-117에도 불만은 많았으나, 그래도 90년대를 대표하는 공격기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광고게재 안내

회원업체의 광고를 본지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업체에 어필할 효과를 기대하는 광고게재 청약을 원하는 회원사는 본지 기획과(761-1101~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란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